

[연구논문]

## 필립 로스의 『미국을 향한 음모』: 역사에 대한 ‘정당한 공포’와 ‘책임’

윤수진

(서울대)

한나 아렌트는 20세기를 살아가는 인류의 경험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과 끊임없이 맞닥뜨리는”<sup>1)</sup> 것이라 표현했다. 20세기의 포문을 연 1차 세계 대전의 발발과 그 상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세계를 또 다시 덮친 2차 대전의 비극, 전 세계를 충격과 경악에 빠뜨린 핵무기의 등장과 나치의 홀로코스트 등 20세기의 역사는 분명 아렌트의 말처럼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폭력의 연속이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을 수 없는 사태들에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슬퍼했지만 그들을 가장 괴롭힌 것은 그러한 예측불가능한 역사의 폭력 앞에 선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한 깨달음이었을 것이다. 허나 이는 비단 20세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세계 곳곳의 내전과 학살, 9/11에 이르기까지 믿을 수 없고,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예상치 못한 일들과의 끊임없는 마주침’ 속에 있다.

필립 로스(Philip Roth)의 『미국을 향한 음모』(*The Plot Against America*)<sup>2)</sup>는 인류에 의해 행해진 20세기의 잔학행위 중에서도 ‘가장 믿을 수 없는’ 사건

---

1) Hannah Arendt, *On Violence* (New York: Harcourt, 1970), 28.

2) Philip Roth, *The Plot Against America* (New York: Houghton Mifflin, 2004).  
앞으로 이 책으로부터의 인용은 페이지 수만 표기함.

중의 하나인 홀로코스트를, 그것도 “홀로코스트가 미국에서 일어난다면?”이라는 더더욱 ‘믿을 수 없는’ 가정 하에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1940년 미 대선에서 공화당이 월키(Wendell L. Willkie)가 아닌 국민적 비행 영웅 찰스 린드버그(Charles A. Lindberg)를 대통령 후보로 택했다면? 그리고 반유태주의적 영향을 가졌던 린드버그가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의 재선을 막으며 미국의 3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면? 『미국을 향한 음모』는 위와 같은 가정을 전제로 린드버그 행정부 하에서 높아가는 반유태주의의 위협과 그 속에서 한 평범한 유태인 가족의 삶이 공포와 폭력으로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이 아님—미국의 제33대 대통령은 린드버그가 아닌, 1944년 한 번 더 대선에 성공하며 3선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였으며 미국에서는 홀로코스트가 일어나지 않았다—을 알고 있는 이 이야기에 대해 작가인 로스는 역설적이게도 이 소설이 얼마나 “그럴법한”(plausible) 이야기인지를 강조한다. 로스는 『미국을 향한 음모』가 출간되기 직전, 뉴욕타임즈의 요청으로 기고한 “『미국을 향한 음모』의 뒷이야기”(The Story behind ‘The Plot Against America’)<sup>3)</sup>라는 에세이에서 미국의 33대 대통령을 린드버그로 만든 역사적 사실의 변형 이외에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사실적으로, “논픽션을 쓰듯이” 쓰고자 했다고 밝히며, 역사적 실존 인물들이기도 한 자신의 소설 속 인물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놀랍고 아름답고 충격적으로, 하지만 그럴법하게” 행동하기를 바랐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을 향한 음모』라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의 현실성을 강조하는 로스의 목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현실 자체의 비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1961년 출간된 책에 실린 에세이 「미국 소설 쓰기」(Writing American Fiction)에서 ‘현실의 비현실성’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

3) Philip Roth, “The Story behind ‘The Plot Against America,’” *The New York Times* 19 September 2004. (Retrieved on July 16, 2009. <http://query.nytimes.com/gst/fullpage.html?res=9500E7DB1338F93AA2575AC0A9629C8B63&scp=1&sq=the%20story%20behind%20the%20plot%20against%20america&st=cse>).

일간신문들은 우리를 놀라움과 경이로움 (그게 가능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뿐만 아니라 역겨움과 절망으로 가득 채운다. …… “이 시대에 깊이 박혀있는 의심은, 말하자면 사건들과 개인들이 비현실적이라는 것, 시대의 방향 그리고 나의 삶과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꿀 힘은 어디에도 주어지지 않지 않다는 것이다.”

The daily newspapers, then, fill us with wonder and awe (is it possible? Is it happening?), also with sickness and despair. … “[D]eeply lodged suspicion of the times [is] namely, that events and individuals are unreal, and that power to alter the course of the age, of my life and your life, is actually vested nowhere.”<sup>4)</sup>

로스의 말처럼 소설가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예사로 일어나는 일상은 현실의 현실성, ‘그럴법함’을 삭제한다. 점점 더 비현실적으로 변해가는 세상과 그런 비현실적인 세상에 직면해 더욱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인간들 사이에서 로스는 20세기의 미국작가가 해야 할 일이란 “미국의 현실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묘사하고 ‘믿을만하게’ 만드는 것”<sup>5)</sup>이라 선언한다. 1960년대에 쓰인 글에 나타난 로스의 이러한 현실인식은 9/11 이후 200년의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미국에서의 삶조차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역사라는 예측불가능성”<sup>6)</sup>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지며, 이는 『미국을 향한 음모』의 핵심 주제가 된다.

로스는 ‘미국에서의 홀로코스트’라는 믿을 수 없고, 믿고 싶지 않은 가정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픽션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예측불가능한 폭력과 맞닥뜨린 인간들이 겪는 고통과 그에 대한 반응을 극적으로 그려낸다. 『미국을 향한 음모』는 미국을 파시즘 국가로 만들려는 린드버그와 히틀러의 음모, 그리고 그러한 역사적 위기 앞에서 예측불가능한 역사가 불러오는 정당한 공포를 외면한 채 신화 속의 안식과 자발적인 마비상태로 도망치는 사람들의 반

4) Philip Roth, “Writing American Fiction,” *Reading myself and Others*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61), 121.

5) 위의 책, 120.

6) Roth, “The Story behind ‘The Plot Against America’.”

응을 독자들의 눈앞에 펼쳐 보인다. 그리고 『미국을 향한 음모』의 이러한 현실 외면과 도피가 가져오는 파국적인 결과는 지난 세기의 홀로코스트의 악몽 뿐만 아니라 무감각한 대중의 외면 속에 자행되는 수많은 현재진행형의 폭력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역사적 현실을 직시하고 역사의 책임을 떠맡기를 거부할 때 그런 믿을 수 없는 일들은 언제고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한다.

## I. 정당한 공포 혹은 망상(paranoia)

로스가 『미국을 향한 음모』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이 역사라는 예측불가능성에 대면해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의미를 파악할 수도,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는 인간의 공포라고 한다면, ‘대체 역사’(alternative history)라는 선택은 그에게 필연적인 것이다. 오스틴 그레험(T. Austin Graham)은 번스타인(Michael Andre Bernstein)의 논의를 빌어 홀로코스트와 같은 이미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소설들의 난점을 지적하는데, 독자들이 이미 사건의 종착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소설은 다양한 열린 가능성에서 오는 긴장을 잃고 이미 주어진 결말을 향해 가는 비극의 전개와 같은 양식을 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소설에 동원되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트라우마적인 사건에 대한 사후적 지식은 아무리 끔찍한 사건이라도 그것을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이해의 기쁨”(pleasure of comprehension)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풍부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주제를 이미 주어진 틀 안으로 환원시키는 어쩔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sup>7)</sup>

이후의 역사가들이 그에 대한 어떤 해석과 설명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의미는 여전

---

7) T. Austin Graham, "On the Possibility of an American Holocaust: Philip Roth's *The Plot Against America*," *Arizona Quarterly* vol. 63 no. 3 (Autumn 2007), 125-26.

히 알 수 없는, 따라서 두려운 것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사태의 파악불가능성 그리고 그로부터 기인하는 공포를 형상화하고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난 역사에 대한 선지식으로부터 오는 “이해의 기쁨”을 독자들로부터 빼앗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로스는 독자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냄으로써 독자들을 모든 결말을 알고 있는 관람자의 위치에서 소설 속의 인물들보다 더도 덜도 알지 못하는 그들과 동등한 위치로 떨어뜨린다. 따라서 “나의[로스의] 독자들은 내게[그가] 창조해내고 있는 역사에 대해 아무 것도 알 수 없다, 완결된 공통의 지식이 없는 것이다”<sup>8)</sup>. 그곳에서 독자들은 작중인물들과 함께 놀라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공포에 떠난다.

이렇게 『미국을 향한 음모』 전체를 감싸고 있는 정서는 ‘공포’이다. “공포가 이 기억들을 지배한다”(1)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영속적인 공포”라는 제목의 장으로 끝나는 이 소설은 반유태주의적 언행을 서슴지 않아 온 린드버그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되는 순간 뉴저지의 유태인 마을인 뉴웁(Newark)의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안돼”라는 외침들을 통해, “미국인 부모의 미국인 아이로, 미국 학교를 다니며, 미국의 도시에서, 평화로운 미국에 살던”(7) 주인공 소년 필립(Philip)의 삶이 돌이킬 수 없이 변하게 될 것을 암시하며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급증하는 린드버그에 대한 지지의 물결과 유태교 종교지도자 벵겔스도프(Bengelsdorf)의 린드버그에 대한 공개적인 옹호 속에 뉴웁의 유태인들은 감출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다.

어른들은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서 자신들의 공포를 숨기며 아이들을 보호하려 하지만 이런 시도는 번번히 실패하고 만다. 벵겔스도프의 연설에 충격을 받은 필립의 어머니 베스(Bess)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이들에게 차를 권하는 모습은 필립에게 “우리의 세계를 침착하고 분별 있는 것으로 유지시키는”(40) 어머니로서의 임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깨닫게 할 뿐이며, “샌디와 나[필립]에게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으며, 미국은 파시즘 국가가 아니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55) 떠난 워싱턴 여행은 아이들에게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8) Roth, “The Story behind ‘The Plot Against America’.”

면전에서 모욕을 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필립은 견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공포와 불안 속에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에 끝까지 매달려 보지만, 어느 곳에서도 자신을 안심시키고 보호해 줄 존재를 찾지 못한다.

나는 공포를 억누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느라, 아버지에 대한 믿음, 민주당과 루즈벨트와 또 그제 누구든 린드버그 대통령을 숭배하는 이 나라의 나머지 사람들과 내가 한 편으로 묶이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해 ..... 애쓰느라 너무나 바빴다. .... 그러자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급히 내 손을 잡았다. 내가 조각조각나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건 자신의 감정의 혼란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건.

[S]o busy was I trying...my best to suppress my fears and trying not to stop believing in my father as well as in the Democrats and FDR and whoever else could keep me from teaming up with the rest of the country in adoring President Rindbergh, .....My mother began crying then, and my father quickly took me by the hand, either to try to prevent me from going to pieces or to protect himself from his own chaos of feelings.(126-27)

자신들을 떨게 하는 위협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부모에 대한,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은 채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어렵פות한 공포 속에 아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나름의 생존방법을 찾는다. 어린 필립은 여전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우표 속의 미국의 세계에 빠져들며, 형인 샌디는 부모 몰래 린드버그의 초상화를 숨기며 그의 영웅적 세계를 동경한다. 그러나 어렵פות하게만 존재하던 위협들이 실체를 갖고 자신의 삶을 침범하기 시작했을 때, 필립은 도망친다. 필립은 '기독교인 남자 어른'을 무작정 뒤쫓아 버스를 타고 모르는 동네를 헤매고, 가족들이 잠든 밤을 틈타 가톨릭 고아원에 들어가기 위해 가출을 하기도 한다. 끊임없이 도망치고자 하는 필립의 "충동적인 또는 히스테리적인 욕구"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더 이상 피할 수 없고 살아 남을 수도 없을 재앙에 저항하기 위한"(232) 그 나름의 방식이다.

반면 린드버그 정부의 미국인 동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가게 된 켄터키의 농장에서, 무력한 아버지가 갖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기독교인 농부 모히니 씨(Mr. Mawhinney)에 매료된 샌디는 이제 아버지에게 대한 경멸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린드버그의 정책을 홍보하는 영웅적 삶에 자신을 내던진다.

하지만 급변하는 현실 속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치의 유대인 박해에 대해 알고 있는 어른들에게 린드버그 정부 하의 미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즉각적으로 유럽의 유대인들의 처지를 상기시키며 그들을 거의 망상적이라 할 만한 수준의 공포에 빠뜨린다. 베스는 허먼(Herman)의 말처럼 마치 그들이 “베를린이라도 있는 양”(62) 평범한 여행가이드를 FBI 요원으로 의심하고, 유대인들은 린드버그가 후보수락 연설에서 유대인을 언급하지 않은 것조차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말하며 “미국의 히틀러!”(17)라 울부짖는다.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가능성들을 배제하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어른들의 이런 태도는 어린 필립마저 “나의 부모님과 그들의 메트로폴리탄 생명 친구들이 정부 정책이 자신들에게 어떤 해도 끼칠 수 있다고 상상하느라 현실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닌지”(246) 의문을 품게 할 만큼 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sup>9)</sup> 샌디는 린드버그 정책의 옹호자인 이모와 랍비 벵겔스도프를 따라 이들을 “겁먹은, 망상에 빠진 계토 유대인들”(227)이라 명명한다.

9) 이 장면에서 화자는 린드버그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으로 인해 더 이상 공공연하게 반유대적 태도를 보이지 않게 되었거나, 이전의 연설 이후 마음을 바꾸었거나, 아니면 그저 유대인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거나, 혹은 유대인들이 정말 미국에 현신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린드버그가 알고 있을 가능성 등을 나열하며, 당시 일곱 살이었던 자신이 그 순간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가능성들을 떠올렸을 것이라 말한다. “린드버그가 후보수락 연설에서 유대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좋은 징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 하지만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에게 린드버그가 유대인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저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17)는 그의 지적은 린드버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하는 유대인들의 고착된 의식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다.

“망상이 뭔데?” 나는 그에게 물었다.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 모두가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쾨터키가 독일에 있다고, 미국의 대통령이 나치 돌격대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 ”

……

“거지같은 계토에서 한 무리의 얼간이들처럼 사는 거지. 이블린 이모가 그러는데 랍비 벵겔스도프가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뭐라고 부르는데?”

“이 인간들이 사는 방식. 그는 그걸 ‘유태인의 고난의 확실성에 대한 믿음’이라 부르지.”

“What’s ‘paranoid?’” I asked him.

“Somebody afraid of his shadow. Somebody who thinks the whole world’s against him. Somebody who thinks Kentucky is in Germany and tha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a storm trooper…”

……

“Living like a bunch of greenhorns in a goddamn ghetto. You know what Aunt Evelyn says Rabbi Bengelsdorf calls it?”

“Calls what?”

“The way these people live. He calls it ‘Keeping faith with the certainty of Jewish travail.’” (227)

그러나 소설이 결말을 향해가며 유태인 이주 정책이 발표되고 계엄령이 내려져 국경이 봉쇄되고 전국 곳곳에서 반유태 폭동과 테러로 유태인들이 희생되면서, 비이성적인 망상에 사로잡힌 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던 이들의 공포는 점차 현실로 나타난다.

샌디가 “유태인의 고난의 확실성에 대한 믿음”이라 부르는 유태인들의 피해망상적 공포가 결국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이 소설의 전개는 많은 서평자들과 비평가들의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을 향한 음모』가 출간된 2004년은 9/11 이후 전개된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폭력에 대한 비판으로 유럽과 미국의 급진적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소위 ‘반유태, 친팔레스타인’ 정서가 확산되고 있던 시기<sup>10)</sup>, 이러한 민감한 논쟁의 한 가운데에서 ‘미국에서의 홀로코스트’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미



국을 향한 음모』는 사무엘 프리드먼(Samuel G. Freedman)의 말처럼 미국 유대인들의 “희생자 판타지”(victim fantasy)를 만족시키는, “고결함을 획득 하며 다른 이들의 비판을 회피하는 한 방법으로 희생자로서의 위치를 주장”<sup>11)</sup>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옹호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또 다른 비평가는 『미국을 향한 음모』가 “홀로코스트를 미국화”하며 미국 인종주의의 실질적 희생자인 아프리카인 아메리칸들의 존재를 지우고 미국을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나뉘 유대인들에게 희생자의 위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을 향한 음모』는 반유대주의에 대한 향수를 자극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라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sup>12)</sup>

하지만 이러한 논쟁의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을 향한 음모』의 유대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유대인종의 지난 역사에 한정해 읽을 것이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의 정신이 위협받고 있는 부시 행정부 하의 현대 미국에 대한 알레고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린드버그의 유대인 동화 정책인 “소박한 사람들”(Just Folks)과 “홈스테드 42”(Homestead 42)를 부시 행정부의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과 “애국가자법”(Patriot Act)에 빛대고 있는 쿿시(J. M. Coetzee)<sup>13)</sup>를 비롯하여, 비행복을 입고 전 미국을 횡단하며

10) Alan Dershowitz, *The Case for Israel* (New Jersey: John Wiley & Sons, 2003). 더쇼위츠는 이 책의 서문에서 자신이 이 책을 쓰던 2003년은 전 세계의 대학들에서 이스라엘을 거의 악마적으로 묘사하고 가르치는 캠페인들이 엄청난 기세로 일어나고 있었고 이런 목적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흐름에 대항해 올바른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의무감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변론’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총 32개의 항목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해명하겠다는 이 책의 내용은 균형 잡힌 사실의 제시라기보다는 ‘희생자로서의 유대인의 위치’를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논변들에 대해 전적으로 이스라엘 편향적인 주장만을 내세움으로써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시온주의에 대한 의미 있는 정치적 비판 들마저도 ‘반유대, 친팔레스타인적 비난’으로 매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11) Samuel G. Freedman, “Philip Roth and the Great American Nightmare,” *Azure* vol. 5765 (Spring 2005), 40.

12) Walter Benn Michaels, “Plots Against America: Neoliberalism and Antiracism,” *American Literary History* vol. 18 no. 2 (2006), 289.

13) J. M. Coetzee, “Philip Roth, *The Plot Against America*,” *Inner Workings: Literary Essays 2000-2005* (London: Penguin, 2007), 229.

‘안전한 미국’이란 수사로 국민들의 지지를 구하는 린드버그로부터 부시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리는 워싱턴 포스트의 서평<sup>14)</sup>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평자들은 『미국을 향한 음모』로부터 유태인의 고난신화보다는 현대 미국의 위협 받는 민주주의와 그 안에서 자행되는 인종적·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한 폭력을 읽어내고자 했다. 『미국을 향한 음모』에 대한 이러한 해석 경향은 심지어 일부 보수 평자들로부터 이들이 “1930년대 유태인의 경험과 2001년 이후 무슬림들의 경험을 동등한 것으로”<sup>15)</sup> 놓으며 실재하는 테러의 목표물이 되고 있는 유태인과 기독교인들의 위협을 가리고 있다는 분노 섞인 반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을 향한 음모』의 유태인들의 고통을 실재하는 유태인들에 대한 위협으로 읽든, 유태인종으로 환원되지 않는 억압받는 타자에 대한 알레고리로 읽든 간에 그러한 독해 속에는 이 작품에 나타나는 유태인들의 공포가 단순한 망상이 아닌, 투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위협에 대한 정당한 공포라는 해석이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부풀려지고 왜곡된 망상으로 보이던 그들의 공포가 하나둘 현실로 드러나는 소설의 전개를 통해 일견 정당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공포에 대한 이런 성급한 정당화는 『미국을 향한 음모』를 너무 쉽게 또 다른 ‘유태인 희생 신화’로 만들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설 자체가 말하고 있는 바와도 상충한다. 로스는 린드버그가 사실 히틀러의 사주를 받고 있었다는—유태인들의 공포가 그저 망상이 아니었다는 반박할 수 없어 보이는 증거를 제시하는 듯 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소설 곳곳에 명백하게 비이성적인 망상으로 보이는 유태인들의 공포를 삽입해두고 있으며 이 중 상당부분을 근거 없는 것으로 제시하거나 진위를 밝히지 않은 채 남겨둔다. 특히 유태인에 대한 폭행,

14) Jonathan Yardley, “Homeland Security,” *The Washington Post* 3 October 2004. (Retrieved on 7 July 2009. <http://www.washingtonpost.com/ac2/wp-dyn/A63751-2004Sep30>).

15) Diana West, “The Unnerving ‘Plot,’” *Townhall* 11 October 2004. (Retrieved on 7 July 2009. [http://townhall.com/columnists/DianaWest/2004/10/11/the\\_unnerving\\_plot](http://townhall.com/columnists/DianaWest/2004/10/11/the_unnerving_plot)).

방화, 유대인 학교와 사원에 대한 폭탄테러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창 밖에서 들려오는 총성을 피해 이탈리아인 커쿠자 씨(Mr. Cucuzza)의 집 뒷켠에 숨어든 로스(Roth) 일가족의 모습은, 나치의 박해를 피해 비밀스런 은둔생활을 해야 했던 독일의 유대인들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환기시킴으로써 이들의 공포를 비이성적인 망상으로 치부하던 독자들마저 이제는 실재하는 위협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듯하지만, 바로 뒤이은 장면에서 로스는 이것이 유대인들을 겨냥한 폭동이 아니라 유대자경단과 시경찰들 간의 총격이었다고 밝힘으로써 비극의 정점으로 보이던 순간을 순식간에 하나의 촌극으로 탈바꿈시켜 버리고 만다.

버만(Paul Berman)이 뉴욕타임즈 서평을 통해 지적하고 있듯, 사실 유대인들의 “사이비 피해의식”(Phony victimhood)<sup>16</sup>은 로스가 이전의 수많은 작품들을 통해 끊임없이 해부해 온, 그에게는 낯설지 않은 주제이다. 필립 로스는 폐쇄적인 유대사회의 전통에 도전했던 첫 작품 『굿바이, 콜럼버스』(*Goodbye, Columbus*, 1959)로부터 유대인의 피해의식, 시온주의와 반유대주의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카운터라이프』(*Counterlife*, 1986), 끊임없이 되돌아 오는 홀로코스트의 문제와 현대를 살아가는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한 고찰인 『샤일록 작전』(*Operation Shylock*, 1993)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전 작가인생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어 왔으며, 그 비판의 신랄함은 로스에게 ‘반유대주의자’라는 악명을 부여할 만큼 날카로운 것이었다. 『미국을 향한 음모』에서 반유대주의자들에 못지않은 적대적인 태도로 ‘우리’와 ‘그들’을 나누며, 노천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시는 일반 시민들을 향해 “파시스트 깡패놈들!”<sup>(10)</sup>이라 소리치는 허먼의 모습은 유대인의 편협하고 무비판적인 피해의식에 대한 로스의 비판을 드러내며, 또한 어린 필립의 눈을 통해 이스라엘 건국을 위한 모금운동을 하는 유대인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그리고 있는 장면은 시온주의에 대한 명시적인 비판을 읽어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16) Paul Berman, “The Plot Against America,” *The New York Times* 3 October 2004. (Retrieved on 7 July 2009. <http://www.nytimes.com/2004/10/03/books/review/03BERMAN.html>).

따라서 『미국을 향한 음모』의 유대인들이 느끼는 공포는 다층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로스는 유대인들의 피해의식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삽입함으로써 『미국을 향한 음모』가 또 다른 ‘유대인의 고난 신화’로 읽히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그러한 유대인들의 망상대로 미국이 반유대주의의 폭력의 물결에 사로잡혀 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예측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지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가공할 폭력에 대한 ‘정당한 공포’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로스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한 ‘정당한 공포’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이것이 뉴웍의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무조건적인 적대 혹은 특정 집단에 대한 무비판적 옹호의 논리를 낳게 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한 공포는 그것이 가져 올 결과를 아직 알 수 없기에 항상 어느 정도 망상에 지나지 않는 것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희생자로서 유대인의 특권적 지위를 정당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되거나 또 다른 파시즘을 정당화하는 기제가 된다면 이는 비판 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로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누구에게라도, 언제 어디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끔찍한 폭력의 전조를 드러내는 현실에 직면해 느껴야만 할 ‘정당한 공포’마저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를 그러한 폭력으로부터 구할 어떠한 힘도 존재할 수 없다는 통찰이다. 『미국을 향한 음모』는 정당한 공포를 느껴야 할 순간에 이를 망상으로 치부하며 무감각하게 손 놓고 있을 때에 인간들이 맞닥뜨리게 될 비극적인 결과를 그리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렵고 불편한 공포를 손쉽게 망상으로 치부해버리고 신화 속으로 도망쳐 허울뿐인 안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그 안에 담겨 있을지 모를 다가올 폭력의 조짐에 반응하고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공포에 대면했을 때 대부분의 인간들이 택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포를 불러오는 예측불가능성, 이해불가능성을 쫓아버릴 수 있는 신화에 기대는 것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미래가 닥쳐올지 예상할 수 없는 인간들은 그것이 미국을 구원할 영웅인 린드버그의 신화이든, 허먼이 끝까지 매달리는 민주주의의 신화이든 무엇에라도 홀린 듯 필사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믿을만한 것으로 만들어 줄 신화에 매달린다. 『미국을 향한 음모』의 미국인들에게 “오직 스스로의 힘에만 의지해 불가능을 가능케 한 전설적인 미국의 남자 중의 남자”(30)로 칭송되는 린드버그는 그 자체로 미국의 신화, 아메리칸 드림의 화신이다. 미국의 하늘을 가르며 국민들이 기다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타나는 그의 모습은 거의 “유사종교적 드라마”(15)에 가까운 스펙타클을 연출하며 온 “나라가 주식 시장의 폭락과 대공황의 비참함을 잊은 듯”(30) 보일 정도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는다. 린드버그의 신화가 가져오는 이러한 망각과 마비의 효과는 나치 독일의 외무장관 본 리벳트로프(von Ribbentrop)의 백악관 초청 문제를 놓고 불거진 전국적인 비난 여론이 그의 영웅적인 쇼 한번에 눈 녹듯 사라지며, 히틀러를 초청한다 해도 “민주주의의 구원자”(180)로 갈채를 받을 정도로 고 신랄하게 묘사되는 맹목적인 국민적 지지를 획득해 가는 과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현실에 대한 정당한 공포를 쫓는 또 다른 신화는 바로 “예상하지 못한 것의 공포”(114)를 숨기는 역사서술의 신화이다. 전쟁에 참전했다 한쪽 다리를 잃은 채 캐나다의 군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조카 앨빈(Alvin)을 만나고 돌아온 허먼은 아들 필립이 보는 앞에서 “버림받은 아기처럼 또 고문 당하는 사람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그리고 화자 필립은 그의 이런 울음을 “예상치 못한 것들을 막을 힘이 없기 때문”(113)이라 해석한다. 이 때 이 “예상치 못한 것”이란 공포를 불러오는 예측불가능한 ‘역사’에 다름 아니다.

린드버그의 당선으로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났듯이 모든 것들이 예상치 못한 일의 펼쳐짐이었다. 잘못된 길로 한 바퀴 빙 돌고 나면, 그 무자비한 예상치 못함이란 곧 우리 어린 학생들이 ‘역사’라고 공부하는 그것이었다. 해롭지 않은 역사, 당대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책장 속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연대기화되는 곳. 예상치 못한 것의 공포, 그것이 바로 역사과학이 재앙을 서사시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숨기는 것이다.

And as Lindberg's election couldn't have made clearer to me, the unfolding of the unforeseen was everything. Turned wrong way round, the relentless unforeseen was what we schoolchildren studied as "History," harmless history, where everything unexpected in its own time is chronicled on the page as inevitable. The terror of the unforeseen is what the science of history hides, turning a disaster into an epic. (113-14)

예측할 수 없고 그 의미를 알 수 없기에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에 원인과 결과의 인과율을 부과함으로써 모든 것을 “불가피한 것”,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귀결로 바꾸어 놓는 역사서술은 “예상치 못한 것의 공포”를 숨긴다. 이로써 역사는 두렵고 경계해야 할 것이 아닌, “해롭지 않은” 것이 되며, 이러한 역사서술이 제공하는 신화 속에 사람들은 공포를 잊고 안락을 찾는다.

아렌트는 『폭력에 관하여』(*On Violence*)에서 진보의 개념에 기반한 역사 과학이 가져오는 마비의 효과에 대해 논하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폭력의 현실 앞에서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만큼 냉혈한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데에 있다”<sup>17)</sup>고 지적한다. 역사의 예측불가능성에서 오는 공포 속에 사람들은 그들이 현재 목도하고 있는 이 충격적인 사태가 사실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일도 두려워해야 할 상황도 아니며, 역사는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납득시키고 안심시켜줄 서사를 갈망한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예측불가능한 사건들을 우연히 일어난 임의적인 사건, 그저 예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며 삶에 연속성과 안정성을 부여하는 역사서술은 아렌트가 인용하고 있는 촘스키(Noam Chomsky)의 말처럼 사람들에게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안락하고 사변적인 또는 의사과학적인 피난처를 제공”<sup>18)</sup>한다.

17) Arendt, *On Violence*, 6.

18) 앞의 책, 28.

“이런 종류의 전략적 이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의 제한적인 유용성이 아니라 그 위험성에 있다. 그러한 이론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사건들에 대한 이해와 사건의 흐름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우리를 믿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 그것들은 최면의 효과를 갖고 있다. 그것들은 인식하고, 이해하고, 현실성과 사실성을 다루는 우리의 정신적 기관에 다름 아닌 우리의 상식을 잠들게 한다.

“[The] most profound objection to this kind of strategic theory is not its limited usefulness but its danger, for it can lead us to believe we have an understanding of events and control over their flow which we do not have,” …… they have a hypnotic effect; they put sleep our common sense, which is nothing else but our mental organ for perceiving, understanding, and dealing with reality and factuality.<sup>19)</sup>

아렌트가 지적하는 현실에 대한 상식적인 감각의 상실은 『미국을 향한 음모』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196)라는 경악 속에 “세상사람이 다 아는데—”(38)라며 말을 잊지 못하는 허먼의 탄식을 통해 드러난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린드버그의 후보지명과 대통령 당선은 “전문가들”에 의해 사후적으로, 워싱턴 대통령의 재선 기록을 깨고 싶지 않아 했던 미국인들의 욕구, 대공황 이후 정상 상태를 바라는 미국인들의 열망, 부흥의 열기 속에 린드버그의 젊고 활기찬 이미지에 대한 대중의 선호와 같은 설명들로 마치 원래 그렇게 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듯 결론 내려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는 그렇게 간단하게”(53) 받아들여지고 잊혀진다.

『미국을 향한 음모』에서 로스가 하고 있는 작업은 사람들을 이러한 마비 상태로부터 깨우기 위해 그들을 최면에 빠지게 한 역사의 신화를 다시 해체하는 것이다. 예측불가능한 사건들에 원인과 결과의 인과율을 부과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해의 기쁨”과 “안락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역사과학은, 아렌트가 지적했듯 우리에게 필요한 “정당한 공포를 쫓아버리는”<sup>20)</sup> 헛된 희망을

19) 위의 책, 7-8.

부여할 뿐이다. 『미국을 향한 음모』의 필립의 말대로 역사가 “당대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이 책장 속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연대기화되는 장소…… 재앙을 서사시로 바꾸어 놓는 것”이라면, 로스가 하고 있는 작업은 스스로 말한 바 있듯 “그 서사시를 다시 재앙으로 돌려놓는 것”<sup>21)</sup>이다. 공포와 경악을 불러일으켰던 사건들에 대한 정당하고 상식적인 반응 대신 역사 서술이 제공하는 그럴 듯한 플롯에 만족한 채 편리한 망각 속에 빠져 든다면, 폭력의 역사는 언제고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로스는 더 이상 공포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완결된 시나리오의 역사가 아닌, 어떤 “선지식도,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역사의 경험을 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때로 망상처럼 보이기도 하는 역사에 대한 ‘정당한 공포’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미국을 향한 음모』는 정당한 공포를 외면하며 신화 속의 안락만을 좇던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향하게 되는 과정과 그러한 파국을 경험하고자 또다시 편리한 망각에 스스로를 내맡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것의 펼쳐짐”인 당대의 시점에서 그려냄으로써, 역사서술이 숨기는 “예상하지 못한 것의 공포”를 되살려 내며 이러한 공포를 의미 있는 행동과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잠들어 있는 우리의 ‘상식’을 일깨우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많은 논란을 낳았던 『미국을 향한 음모』의 결말에 대한 평가 역시 달라질 수 있다. 파시즘의 기운이 전 미국을 휩쓸고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어 보이는 파국의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만화같이”<sup>22)</sup> 느껴질 만큼 갑자기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질서를 회복하는 『미국을 향한 음모』의 결말이 한 서평자의 말처럼 “(숨씨 좋긴 하지만) 터무니없는”<sup>23)</sup> 것으로 보이는 것은, 쿣시가 말하듯 로스가 상상의 역사와 실제의 역사의 봉합에 실패했기 때문이거나, 소설적 상황이 대안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두려워한 로

20) 앞의 책, 56.

21) Roth, “The Story behind ‘The Plot Against America’.”

22) Michiko Kakutani, “Books of the Times; A Pro-Nazi President, A Family Feeling the Effect,” *The New York Times* 21 September 2004. (Retrieved on 16 July 2009. <http://www.nytimes.com/2004/09/21/books/21kaku.html>).

23) 위의 글.



스가 주춤하며 물러서고 있기 때문이<sup>24)</sup> 아니다. 『미국을 향한 음모』의 결말이 “터무니없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를 로스의 ‘실패’로 읽는 것은 명백한 오독이다. 로스는 결국 역사는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이 대혼란을 성급히 봉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에 인과율을 부여하는 역사 서술에 의한 봉합의 부조리성과 임의성을 폭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터무니없이” 보이는 결말을 고안해 내고 있다. 이러한 결말의 의도성은 소년 필립의 시점으로 전개되던 소설의 서사가 “하지만 그때 그것이 끝났다. 악몽이 끝났다”는 그의 말을 마지막으로 급작스럽게 “뉴욕의 뉴스영화 극장 아카이브로부터”(301)라는 제목의 연대기적 역사서술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미 드러난다. 망상처럼 보였던 공포가 극단적인 현실이 되어 나타난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로스 가족을 구할 어찌면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이후의 역사적 사건들이, 앞서 공들여 묘사된 그들의 고통과 불안, 슬픔이 다 허망하게 느껴질 정도로 간단하게 단 몇 페이지의 ‘객관적’ 서술로 정리되는 과정은 그러한 역사서술에는 역사에 대한 ‘정당한 공포’가 들어설 자리가 없음을,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무감각한 상태에 빠뜨리는 기만적인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로스의 장치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사태에 대한 “이해의 기쁨”을 제공해주는 신화에 매달린다. “뉴욕의 뉴스영화 극장 아카이브로부터”의 역사서술에 어느샌가 슬며시 끼어드는 랍비 벵겔스도프의 회고록의 내용은 린드버그의 반유대주의가 그의 아들을 납치해 억류하고 있는 히틀러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그럴듯한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미국 베스트셀러 목록의 꼭대기”(327)에 이름을 올린다. 이 회고록이 “사실에 전혀 기반하지 않은 비난 받아 마땅한 중상 모략”(326)이고 “확실한 과대망상자의 정신 나간 일기”(327)라는 등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홀로코스트’라는 믿을 수 없는 사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석을 요구하는 대중의 욕망은 그의 해석을 구매하고 소비한다. 이렇게 미국인들은 미국 역사에 유래 없는 폭력을 낳았던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죄의식을 히틀러라는 절대 악에 손쉽게 전가함으로써, 또한 이를 통해 자신들

24) Yardley, “Homeland Security.”

의 신화적 영웅인 린드버그에 대한 이상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또 다시 역사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식을 얻는다.

## II. 민주주의의 신화와 역사에 대한 책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의 조짐들과 견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공포 속에서 허만이 끝까지 매달리는 것은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How can this be happening in America, 196)라는 질문이다. 그러나 『미국을 향한 음모』는 그의 이런 질문에 “이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It can't happen here? My friends, it *is* happening here, 305)<sup>25)</sup>라는 비극적인 선언으로 답한다. 1935년 발표된 싱클레어 루이스(Sinclair Lewis)의 소설 제목이기도 한 “이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부인은 또한 유럽의 유대인들이 그들로서는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았던 나치의 최종해결책(Final Solution)이 과장된 소문이거나 망상에 지나지 않으리라 자위하며 기뻐던 현실왜곡의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허만에게 이러한 사태가 더욱 ‘믿을 수 없는’ 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곳”이 바로 다름 아닌 미국이기 때문이다. 유대인이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기독교 국경일들을 기념하고 “우리의 고향은 미국”(4)이라고 말하는 로스 가족에게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약속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의 땅,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이 있고 권리장전이 있는”(18)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역사이다. 따라서 허만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욕과 인권침해, 폭력의 사례들 속에서도 “미국

25) 유대인을 겨냥한 폭동과 테러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린드버그를 파시스트라 공격하며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윈첼(Winchell)이 암살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뉴욕시장인 라구아디아(La Guardia)는 모두가 부인하지만 그 믿을 수 없는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미국에 현존하는 나치즘의 위협을 직시할 것을 요청한다.

의 역사가 우리를 보호”(58)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허만을 둘러싼 현실은 그의 이러한 믿음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점점 흘러간다. 반유태주의가 의심되는 호텔의 부당한 처우와 나치의 외무장관이 백악관에서 환대를 받는 뉴스 화면, 폭동이 일어나고 유태인을 겨냥한 테러와 방화, 살인이 미국을 휩쓰는, 허만의 말대로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환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196) 일들은 ‘민주주의의 땅’ 미국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 허만은 이런 현실을 목도하면서도 ‘미국의 민주주의, 헌법, 권리장전, 게티스버그 연설, 최고법원의 존재와 투표권’을 언급하며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민주주의의 가치에 반하는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그가 끝까지 매달리는 이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들은 그와 그의 가족에게 무엇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부당하게 호텔에서 쫓겨나게 되자 법과 민주주의를 언급하며 항의하는 허만에게 조소를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듯, 이미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 가치와 의미를 잃고 껌데기뿐인 기표가 되었으며 누구도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듯 보인다. 따라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태들을 직시하기를 거부하며 끝까지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고수함으로써 점점 파국에 다가가는 허만의 모습은 독자들에게 그 결연한 무지와 순진함에 대한 조소와 함께 안타까운 비극적 정서마저 가져다준다.

허만의 믿음이 결국 그와 그의 가족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길한 징조는 소설 곳곳에서 드러난다. 일례로 『미국을 향한 음모』에서 민주주의의 수사가 가장 열정적으로, 그럴듯하게 사용되는 것은 친나치적인 린드버그와 그의 추종자들의 발언에서이다. 린드버그가 히틀러가 수여한 메달을 받고 국민의 비난에도 돌려주기를 거부한 사건을 두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38)라고 말하면서 독일의 유태인 학살은 분노할만한 일이지만 모든 독일인에게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랍비 벵겔스도프의 연설이나, 히틀러를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세계의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공공연히 찬양하는 린드버그의 연설은 알맹이는 없고 껌데기만 남은 ‘민주주의’의 전유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자신과 가족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민주주

의의 논리가 린드버그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전유되고 있는 현실을 본 허만은 경악을 금치 못하지만, 그는 그들의 세련된 논리에 저항할 언어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 베스의 여동생인 이블린의 약혼자가 된 랍비 벵겔스도프가 로스가의 저녁식사에 초대되어 유창하고 지적인 말솜씨로 린드버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때 허만이 할 수 있는 말이란 그저 “아니, 아니죠”(111)뿐이다.

허만이 그토록 매달리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증해 줄 것이라 믿고 있는 법의 존재와 국민으로서의 권리 행사인 투표마저도 기만적인 정부와 이를 방조하는 대중의 태도 앞에서 무력한 것은 마찬가지다. “생애 한번뿐인 기회를 제공하는 … 우리나라의 가장 오랜 전통”(204), “여러분의 미국인으로서의 의미를 높일 수 있는”(205) 기회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반강제적 이주 정책인 “홈스테드 42”의 통고문을 받아 든 로스 가족은 이것이 명백히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는 그들의 처지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한다.

“난 정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정부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정부가 사람들을 강제로 집 싸서 가게 할 수는 없다고—그런 건 내가 들어본 어떤 헌법에도 없어.”

… “그럼 우리는 왜 가야 해요?” 그녀가 물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이걸 ‘불법’이에요. …… 이걸 법에 위반되는 거라고요. 이게 법에 위반된다는 건 모두가 **알아요.**”

“네에” 고개 들어 보는 것조차 귀찮다는 듯 그리고 있던 그림에서 눈도 떴지 않은 채 샌디가 말했다. “그럼 미국을 고소하지 그러세요?”

“고소할 수 **있어.**” 내가 그에게 말했다. “대법원에 고소하면 돼.”

“I’m talking about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cannot do this. They cannot force people to pick up and go—that is not in any constitution that I ever heard of.”

… “Then why are we going?” she asked. “Of course they are forcing us. This is *illegal*. … This is against the law. Everyone *knows* it is against the law.”

“Yeah,” said Sandy without bothering to look up from what he was sketching, “why don’t we su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 *can* sue,” I told him, “In the Supreme Court.” (208, 원문 강조)

“그럼 미국을 고소하지 그러느냐”는 샌디의 조롱과 그 말에 순진하게 “고소할 수 있다”고 강변하는 어린 필립의 대꾸는 국가기구가 법치의 원칙을 무시할 때 법외의 호소마저 무의미한 것이 되는, 로스 가족이 처한 곤경을 잘 드러낸다. 또한 “여전히 투표함이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라는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다”는 허만의 주장은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의 분명한 내재적 한계를 지적하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에 표를 던지는 데요?”(197)라는 베스의 물음에 그 힘을 잃고 만다. 베스의 물음은 명백히 부당한 정부의 정책들에서 어떠한 문제도 보기를 거부하며 이를 승인하는 대중들뿐만 아니라, 유태인 거주지에 비유태인들을 이주시킴으로써 유태인들이 선거에 끼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인 “좋은 이웃 프로젝트의 숨겨진 목적”(280)을 고려할 때, ‘미국의 민주주의’의 어느 한 곳에도 기댈 구석 없는 그들의 처지에 대한 매우 정확하고 날카로운 분석을 제공한다.

높아가는 반유태주의의 물결 속에서 로스 가족을 둘러싼 환경과 허만의 믿음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져 갈수록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굳은 믿음은 더욱 더, 감당할 수 없는 위협의 존재를 느끼는 인간의 고집스런 현실부인처럼 느껴지게 된다. 허만이 법의 존재와 자유선거의 의미를 더 소리 높여 주장할수록, 그가 의지하고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단지 신화에 지나지 않는 것일지 모른다는 독자의 심증은 더욱 굳어져 간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인식은 그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하나들 미국을 떠나는 다른 유태인들, 허만 몰래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부인 베스, 심지어 어린 아들 필립마저도—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링컨 기념관에서 린드버그 대통령 지지자와의 시비 끝에 “떠별이 유태인”이라는 공개적인 모욕을 당한 허만은 아들 필립에게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65)는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소리 내 읽어보라 시키며 사태의 부당함에 항의하려 하지만, 이 장면에서 필립이 느끼는 감정은 “애국자의 낙원, 미국이라는 에덴동산”에서 자신의 “가족이 추방당했다”(66)는 좌절감이다.

허만이 자신의 믿음을 고수하며 미국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사이, 어느새

전 미국으로 무차별적으로 확산된 폭력의 물결은 결국 외부의 폭력으로부터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야 할 그의 가정마저 휩쓸어버린다. 계속되는 위협 속에서도 미국의 민주주의의 신화에 기대어 자신에게 닥쳐오는 위협을 부인하던 허만은 다른 곳도 아닌 자신의 집 거실에서 조카 앨빈과 온 거실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는 최악의 폭력의 장면을 연출한 후에야 이제 이곳 “뉴욕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300)하고 받아들인다. 미국의 민주주의의 가장 충성스런 신봉자였던 허만이 “그가 지금까지 다 틀렸다고 시인”(301) 하며 이제 더 이상 미국인이기를 포기하고 다른 유대인들처럼 미국을 떠날 결심을 밝히는 이 장면은 그가 고집스레 매달려온 미국의 민주주의의 신화가 결국 그들을 구할 수 없는 부질없는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 신화는 이렇게 ‘자유와 평등, 법치주의, 자유선거’와 같은 그럴듯한 말들로 포장된 껍데기를 벗고 그 텅 빈 속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믿음이 끔찍하고 비통한 깨달음 속에 부인되는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갑자기 제자리로 돌아온다.

린드버그의 실종 이후 극단적인 파시즘을 향해 견잡을 수 없이 치닫던 미국은 미국 민주주의 역사의 가장 소중한 문건들을 언급하며 현정부의 ‘위헌성’에 저항할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영부인 린드버그 여사의 연설과 뒤이은 선거를 통해 루즈벨트가 대통령직에 복귀하면서 빠르게 질서를 회복한다. 데이비드 할러웨이(David Holloway)는 『미국을 향한 음모』의 이와 같은 전개를 두고 이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미국의 신화를 다시 공고히 하는 보수적인 결말이라 비판한다. 할러웨이는 린드버그의 정부 하의 미국의 파시즘적 행보를 현대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인권침해와 연관 지으며 로스가 “린드버그의 집권을 우연적이고 비전형적인 것으로, 체계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 아닌 그릇된 정치적 판단”<sup>26)</sup>의 산물로 그림으로써 미국의 파시

26) David Holloway, *Cultures of the War on Terror: Empire, Ideology, and the Remaking of 9/11* (Ithaca: McGill-Queens Queen's Univ. Press, 2008), 108-110.

즘이라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을 그저 하나의 예외 혹은 일탈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잠시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 그렇게 되었을 뿐, 미국은 본래 그리고 여전히 민주주의의 나라라는 “미국주의의 긍정”(affirmation of Americanism)<sup>27)</sup>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의 '회복' 과정과 그것이 가져온 '질서'의 성격을 가까이 들여다 볼 때, 우리는 오히려 미국의 민주주의 신화에 대한 재승인이 아닌, 그에 대한 부정과 염려, 경고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일견 미국은 민주주의의 나라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허만의 미련할 정도로 고집스런 믿음이 결국 옳은 것으로 드러나는 듯 보이는 『미국을 향한 음모』의 결말은, 그러한 질서 회복이 허만이 그의 모든 신념을 잃고 미국을 떠나기로 결심한 이후에 이뤄진다는 것을 제외하고도 할러웨이의 해석에 반하는 다양한 맥락들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회복'된 민주주의는 여전히 허만이 갖고 있던 민주주의의 이상과는 요원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러한 회복의 과정 역시 폭력을 향해 치달던 파괴의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그려진다.

일단 허만의 고백 이후 급격히 질서를 되찾아가는 『미국을 향한 음모』의 민주주의의 회복 과정은 부조리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우연적이고 임의적으로 전개되며, 그간 '망상'으로 치부하며 부인해 왔던 폭력의 증거들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이 실제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목소리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다시 정권을 잡은 '좋은' 지도자 루즈벨트는 마치 그런 일이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듯 이전 정권에 대한 “전적이고 조건 없는 절대적 사면”(320)을 발표하고, 로스 가족을 파멸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그리고 실제로 셸먼의 가정을 파괴함으로써 그를 고아로 만든) 사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봉합되고 잊혀진다. 의도적인 유태인 학살을 유태인 선동가들에 의해 촉발된 “불행하지만 피할 수 없었던”(266) 사고로 정당화하며 폭력의 존재를 부인했던 인론은 그 실체가 드러난 후에도 별다른 반성과 진실 규명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반유태 폭동과 암살, 계엄령 선포와 국경 폐쇄, 유태인 학살

---

27) 앞의 글, 110.

에 대한 정부의 방조로 이어지며 극단으로 치닫던 상황을 제어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던 미국의 민주적 제도들은 실상 질서의 회복 과정에서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 린드버그의 실종 이후 고삐 풀린 증오와 폭력 속으로 미국을 몰아가던 윌러(Wheeler) 부통령을 자리에서 몰아낸 것은 최고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린드버그 부인의 연설이 이끌어 낸 여론의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의 회복을 요청하며 “나는 선동적인 정부의 불법적인 대표자들에게 굴복하지도 위협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인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저를 따라, 정당화될 수 없는 정부의 행위를 받아들이거나 지지하기를 거부하라는 것 이상이 아닙니다”(319)라는, 인민 주권의 원리를 다시 한 번 천명하는 훌륭한 연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움직인 것은 그러한 민주주의 정신의 회복,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겠다는 자각이라기보다는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린드버그에 대한 신격화와 다르지 않은 그녀가 가진 ‘신화적 힘’이었다.

“우리의 적의 음모는 실패합니다. 자유와 정의는 회복됩니다. 그리고 미국 헌법을 훼손한 자들은 이제 정부 법 기관에 의해 해임될 것입니다. 이 땅의 법에 대한 엄격한 준수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영부인”은…희생당한 아이의 슬픔에 잠긴 어머니이자 사라진 신의 의연한 미망인으로서 갖는 그녀의 신비함의 힘을 내보임으로써 … 위헌적인 윌러 행정부를 … 신속히 해체시키는 수를 사용했다.

“Our enemies’ plot has failed, liberty and justice are restored, and those who have violate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hall now be addressed by the judicial branch of government, in strict keeping with the law of the land.”

“Our Lady of the White House” … marshaling the power of her mystique as sorrowing mother of the martyred infant and resolute widow of the vanished god, engineers the speedy dismantling … the unconstitutional Wheel administration … (319)

미국이 파시즘을 향해 가든, 민주주의를 회복하든 국민들은 여전히 스스로



선택한 신화와 무지 속에 머무르고 있다. 결국 내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미국인들은 질서의 회복 이전이나 이후나 같은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고 사고한다. 자신을 둘러싼 상황들을 바로 보고 알고 행동하기 보다는, 잠자코 누군가가 던져주는 설명을 듣고 있기만을 바라는 이들의 태도는 스탈린적인 사상통제가 없어도 스스로 불편한 진실을 차단해 집단의 환상을 유지하고, 환상을 해체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났을 때에는 해명논리를 소비하고 유포하며 일사불란한 집단적 무지를 조장하는 “인민이 그 저자로서 만들어내는 파시즘”<sup>28)</sup>을 생산한다.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생산한 신화 속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의 이러한 마비상태는 “나는 역사와 결부되고 싶지 않다”며 도망친 필립이 머리를 다쳐 “기억상실”(233)을 진단받았듯, 역사를 부인하는 집단적인 망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망각은 폭력의 역사의 반복을 부른다. 그 때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는 전혀 새롭지 않은 놀라움 속에 또 다시 부인하고, 도망치고, 망각할 것이다.

『미국을 향한 음모』가 보여주는 미국의 민주주의의 ‘회복’ 과정과 결과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신화를 공고히 한다기보다 오히려 이를 해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학자 웬디 브라운(Wendy Brown)이 오늘날의 민주주의에 대해 내린 진단인 ‘우리가 원하지 않은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적 자유를 갈망하지 않는 인민’이라는 현대 민주주의의 이중근경에 대한 인식까지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민주주의 자체가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껍데기뿐인 기표’가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공적인 삶보다는 개인적인 이익만을 쫓으며 민주주의적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한다는 『미국을 향한 음모』의 정치적 현실인식은 ‘미국의 신화’에 대한 비판을 넘어 ‘민주주의의 신화’에 대한 비판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9)</sup> 『미국을 향한 음모』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잘못된

28) 웬디 브라운, “오늘날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자이다……”, 조르지오 아감벤 외, 김상운 외 옮김, 『민주주의는 죽었는가?』(서울: 난장, 2010), 101.

29) 『미국을 향한 음모』는 ‘인민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본래적 의미는 사실상 대의제나 입헌제 같은 현대의 민주주의 제도들과 아무런 관련도 맺고 있지 않기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인민의 의지가 없이는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는

지도자로 인해 '훼손'되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가는 과정이라기보다, 오히려 본래 '인민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 자체로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 않기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인민의 의지와 지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역설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홀로코스트라는 엄청난 비극을 가까스로 피하고도 또 다시 손쉬운 망각에 빠져드는 미국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미국을 향한 음모』의 결말은 질서를 회복하며 안정을 되찾는 희망적인 것이라기보다, 이미 민주주의라는 말이 의미를 잃었고 누구도 그 의미를 되찾기를 원하지 않는 사회에서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폭력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암울하고 비관적인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실제로 콧시는 『미국을 향한 음모』를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1984』와 연관 지으며 이 소설을 “디스토피아 소설”<sup>30)</sup>로 분류하고 있으며, 허만의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신화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강등시키며 자발적 마비 상태에 빠져 있는 대중의 실체를 고발하는 소설의 전개는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어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객관적'인 역사서술의 글쓰기에서 다시 필립의 서사로 돌아오는 마지막 장 “영속적인 공포”는 이러한 성급한 좌절과 포기의 선언에 저항하는 행동하는 개인의 모습을 제시한다. ‘홈스테드 42’ 정책에 따라 셀먼(Selmon) 가족이 이주한 켄터키에서 백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반유태 폭동이 일어나고, 어머니 없는 집에 홀로 남겨진 어린 셀먼으로부터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전화가 걸려왔을 때, 베스와 허만은 이 아이를 돕고 살리기 위

---

다는 ‘인민의 행동’을 촉구하는 민주주의 비판과 함께, 민주주의에 내재된 구성적인 바깥인 배제의 원리에 대한 비판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여지를 포함하고 있다. 로스는 켄터키 농장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샌디가 모히니 씨에 대한 숭배를 드러내는 장면에서 미국의 주류인 앵글로 색슨 신교도들이 혁명을 위해 싸우기도 했지만 동시에 ‘황무지’를 정복하고, 인디안들을 종속시키고, 흑인을 노예 삼았던 역사를 언급함으로써 미국의 민주주의의 기원에 존재하는 배제와 폭력을 상기시킨다. 뿐만 아니라 린드버그를 옹호하는 벵겔스도프의 입을 통해 미국인들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 ‘약간의 잘못’이 있었으며 그럼에도 그런 농장들이 없었다면 대의제 정부도 없었을 것이라는 해설을 제시함으로써 미국의 민주주의의 성립과정에 존재했던 노예와 원주민이라는 배제된 내부집단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30) Coetzee, 앞의 책, 241

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콜렉트콜 비용이 얼마가 나오든 아랑곳 않고, 어머니가 죽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에 극도의 공포에 빠진 셸먼을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더 이상의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화기 너머로 그에게 말을 거는 베스의 모습은 이 소설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이며, 이런 어머니의 모습에서 필립은 그녀가 그간 겪어야 했던 수많은 불행과 공포에도 소멸되지 않은 “어머니의 강함”(335)의 존재를 느낀다. 허만은 엘빈과의 싸움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셸먼을 구하기 위해, 사방에서 유태인을 겨냥한 살인과 방화가 일어나고 있는 미국대륙을 횡단해 가며 그 과정에서 실제로 몇 번이나 자신과 자식인 샌디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경험한다.

자신과 가족의 생존 자체가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떤 보상에 대한 기대도 없이 타인을 위해 뛰어드는 이러한 허만의 행위는 화자 필립의 말처럼 “미친 스토아주의”(358)로 보일 수 있다. 특히 ‘국익’을 내세워 파시즘에 저항하는 국제적인 연대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며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 행위들을 외면하는 린드버그파의 논리나, 그러한 잔학행위에 대한 정당한 분노로 참전한 엘빈의 행위를 “쓸데없는 것”(108)이라 말하는 벵겔스도프의 논리 안에서 어떤 ‘이익’이나 ‘소용’도 가져다 주지 않는 이러한 이타적 행위는 말 그대로 “미친” 짓이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치를 두지 않는 탐욕스런 자본주의의 화신인 필립의 삼촌 몬티(Monty)는 자신의 잘못으로 위험에 빠진 엘빈을 쏘아지는 총알 세례에서 구한 그의 동료들을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일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몬티 삼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라는 필립의 말은 그에게는 그저 “제대로인 부적격자”(a professional misfit, 151)의 헛소리로 들릴 뿐이지만, 어떤 이들에게 이는 말 그대로 어떤 특별한 이유도 동기도 존재하지 않는 당연한 일, 즉 ‘상식’적인 행동일 뿐이다.

인권침해를 부인하는 국가와 사회의 메커니즘을 분석한 『부인하는 상태/국가들』(*States of Denial*)의 저자 스탠리 코언(Stanley Cohen)은 믿을 수 없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을 때 이를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정상적인

심리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행동이든 취해야겠다”는 충동과 감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한다. 합리적 자기이익의 모델과 달리 사람들은 여전히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며, 가족이나 공동체, 국가의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인류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자아의식에 기인해 마치 다른 대안이 라고는 없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개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개인들은 오히려 폭력의 방관자들을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들이 특별한 일을 한다고 생각지도 않고, 자신의 행동을 당연히 그래야 하므로 돕는 것,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가족 내에서 배우고 실천해온 일상의 도덕을 타인에게도 계속 행하는 것일 뿐이라 여긴다.<sup>31)</sup>

전장에서 다리 한 쪽을 잃고 돌아온 앨빈이 씁쓸한 조롱을 담아 이야기 하듯 세상에는 자기 이익을 쫓는 데에 혈안이 된 채 다른 모든 것은 어떻게 되건 상관치 않는 기회주의자 인간들과 허먼과 베스 같은 정직한 인간이 혼재한다. 그리고 이 행동하는 개인들은 파시즘에 대한 분노와 그 희생자들에 대한 동정으로 전쟁에 참전했을 때 앨빈이 가졌던 “자신의 고통만이 아닌 다른 이들의 고통에 대한 관심”(158)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허먼과 베스가 특별한 인간이라서 혹은 그들이 고통 받는 유대인이라서가 아니다. 베스의 전화를 받고 지체 없이 셸먼을 자기 집으로 데리러 떠나는 켄터키 농장의 모히니 씨나 뉴웁에도 임박한 반유태 폭동의 위험 속에 로스 가족을 돌보는 아래 층의 커쿠자 씨 모두가 당연히 그래야 하므로 타인을 돕는 『미국을 향한 음모』의 행동하는 개인들이다.

하지만 이 특별하지 않은 인간들의 특별하지 않은 행동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현실의 사태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동료인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 일이다. 예측불가능한 현실의 공포 앞에서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나는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다”(171)는 필립의 말처럼 현실을 외면해 버릴 때, 그곳에서는 어떤 행동도 일어날 수 없다. 전장에서 다리를 잃은 앨빈이 자신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필립은 이미 자신이 겪

31) Stanley Cohen, *States of Denial: Knowing about Atrocities and Sufferings* (Cambridge: Polity, 2001), 249-277.

고 있는 고통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심지어 더 큰 고통의 삶이 나의 주변에 형체를 띠고”(108-9) 나타난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또 다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었다. “그의 잘린 다리—그게 망가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그것을 보아야만 하는지? 언젠가는 내가 그것에 손을 대야만 하는지? 사람들이 그것을 바로 잡을지?”

[W]hat I wanted to ask was: “His stump—what does it mean that it’s broken down? Do I have to look at it? Will I ever have to touch it? Are they going to fix it?” (131)

필립이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앨빈의 “잘린 다리”는 폭력의 역사의 상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했던 모든 일 그리고 하지 않았던 모든 일”(346)에 대한 책임을 상징한다. 맞지 않는 의족으로 인해 계속해서 “망가지는” 그의 다리는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벌어지고 갈라지고 쪼는”(135) 역사의 상처에 다름 아니며, 아무리 도망치고 싶고 외면하고 싶어도 필립은 이 역사의 상처를 직시하고 끌어안아야만 한다. 그런 그의 노력이 그러한 폭력의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을지 아무런 약속도 없을 때조차 도망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선택이다.

하지만 필립은 앨빈에 이어 자신에게 주어진 또 다른 짐인 셸던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발버둥친다. 병든 아버지와 함께 로스 가족의 아랫집에 살았던 셸던은 필립과 친구가 되기를 갈망하는 외롭고 창백한 유대인 소년이다. 필립이 상상하고 두려워했지만 그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모든 재앙—아버지의 죽음과 가족의 반강제 이주, 어머니의 죽음까지—을 모두 겪으며 결국 고아가 되는 셸던은 필립의 “또 다른 자아”(222)이자, 아무리 노력해도 “지워버릴 수 없는 책임”<sup>32)</sup>의 다른 이름이다. 필립은 자신을 끈질기게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며 “잊고 싶은 바로 그것을 상기시키는”(189) 셸던

32) Roth, “The Story behind ‘The Plot Against America.’”

을 떼어 놓기 위해 갖은 방법을 모두 동원해 보지만 그때마다 셸던은 더 큰 절망과 상처를 안고 그의 곁으로 돌아올 뿐이다. 작가 로스의 말처럼 『미국을 향한 음모』가 ‘비극’이 되는 것은 필립이 이런 셸던의 존재를 지워버리려 하기 때문이며<sup>33)</sup>, 필립이 결국 도망치기를 그만두고 그의 불행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일 때 소설은 새로운 희망의 빛을 띤다. “내가 셸던에게 그랬어요”(336)라는 책임의 선언과 그 책임을 다하는 필립의 모습을 암시하는 마지막 문장—“이번에는 내가 돌봐야 할 잘린 다리가 없었다. 그 아이 자체가 잘린 다리였고 … 나는 의족이었다”(362)—은 『미국을 향한 음모』의 세계를 그저 디스토피아로만 볼 수 없게 하는 희망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로스는 『미국을 향한 음모』에 관해 쓴 에세이에서 미국에서 홀로코스트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수많은 가능성들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한다.<sup>34)</sup> 로스의 이 발언은 미국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나라이고 그런 끔찍한 일은 어딘가 멀리 떨어진 다른 사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또 다른 종류의 부인이 아니다. 아렌트가 『에루살렘의 아이히만』(*Eichmann in Jerusalem*)에서 소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도왔던 독일인 하사의 사례처럼 모두가 숨죽이며 순응하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하므로 다른 이들을 돕는 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이는 유대인에 대한 대규모 학살이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수많은 나라들에도 역시 적용될 수 있다.<sup>35)</sup> 로스는 역사에 대한 정당한 공포를 외면하고 위안과 피난처를 제공해 줄 신화에 매달림으로써 자발적인 마비 상태에 빠져든 『미국을 향한 음모』의 미국인들을 통해 그러한 부인과 망각이 가져올 수 있는 끔찍한 결과에 대해 경고하면서도, 고통스런 깨달음의 과정을 거쳐 부인에서 시인으로, 그리고 또 행동으로 옮겨간 허만과 같은 행동하는 개인을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끔찍한 폭력으로서의 귀결을 막을 수도 있을 상식의 회복, 책임과 행동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33) 앞의 글.

34) 앞의 글.

35) Hannah Arendt, *Eichmann in Jerusalem: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 (New York: Penguin, 1994; orig. edn, 1965), 233.

뿐만 아니라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이나 언어도 갖지 못했던, 그로 인해 절대적인 공포 속에 끊임없이 도망치기만을 꿈꿨던 어린 필립이 과거의 끔찍한 공포의 기억을 정당한 상식의 언어로 평가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나 무감각한 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공포'를 일깨우는 새로운 서사를 창작한다는 설정은, 폭력의 역사를 기억하고 새로운 역사를 서술하는 일이 역사의 책임을 잊지 않는 또 다른 한 방식임을 일깨우는 것이기도 하다. 작가이자 스스로의 공포의 기억을 전하는 화자인 『미국을 향한 음모』의 필립은 작가의 말처럼 “미국의 현실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묘사하고 믿을만하게 만드는” 것을 임무로 하는, 즉 ‘믿을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상식적인 설명과 이해를 제시하며 정당한 공포를 일깨워 사람들을 망각과 마비의 상태로부터 각성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할 미국작가의 한 모범적 사례이기도 한 것이다.

## 참고문헌

- 조르지오 아감벤 외, 김상운 외 옮김, 『민주주의는 죽었는가?』서울: 난장, 2010.
- Arendt, Hannah, *Eichmann in Jerusalem: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 New York: Penguin, 1994.
- \_\_\_\_\_. *On Violence*. New York: Harcourt, 1970.
- Berman, Paul. "The Plot Against America." *The New York Times* 3 October 2004. Retrieved on 7 July 2009.  
<<http://www.nytimes.com/2004/10/03/books/review/03BERMAN.html>>
- Coetzee, J. M., "Philip Roth, *The Plot Against America*." *Inner Workings: Literary Essays 2000-2005*. London: Penguin, 2007. 228-243.
- Cohen, Stanley. *States of Denial: Knowing about Atrocities and Sufferings*. Cambridge: Polity, 2001.
- Dershowitz, Alan, *The Case for Israel*. New Jersey: John Wiley & Sons, 2003.
- Freedman, Samuel G., "Philip Roth and the Great American Nightmare." *Azure* vol. 5765 (Spring 2005): 33-43.
- Graham, T. Austin, "On the Possibility of an American Holocaust: Philip Roth's *The Plot Against America*." *Arizona Quarterly* vol. 63 no. 3 (Autumn 2007): 119-149.
- Holloway, David, *Cultures of the War on Terror: Empire, Ideology, and the Remaking of 9/11*. Ithaca: McGill-Queen's Univ. Press, 2008.
- Kakutani, Michiko. "Books of the Times; A Pro-Nazi President, a Family Feeling the Effect." *The New York Times* 21 September 2004. Retrieved on 16 July 2009. <<http://www.nytimes.com/2004/09/21/books/21kaku.html>>
- Michaels, Walter Benn. "Plots Against America: Neoliberalism and Antiracism." *American Literary History* vol. 18 no. 2 (2006): 288-302.
- Morley, Catherine. *The Quest for Epic in Contemporary American Fiction: John Updike, Philip Roth and Don DeLillo*. New York: Routledge, 2009.
- Morrison, Blake. "The Relentless Unforeseen." *The Guardian* 2 October 2004. Retrieved on 7 July 2009.  
<<http://www.guardian.co.uk/books/2004/oct/02/fiction.philiproth>>



- Parrish, Timothy,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Philip Roth*.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7.
- Roth, Philip. *The Plot Against America*. New York: Houghton Mifflin, 2004.
- \_\_\_\_\_. "Writing American Fiction." *Reading myself and Others*.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61. 117-135.
- \_\_\_\_\_. "The Story behind 'The Plot Against America'." *The New York Times* 19 September 2004. Retrieved on July 16, 2009.  
<<http://query.nytimes.com/gst/fullpage.html?res=9500E7DB1338F93AA2575AC0A9629C8B63&scp=1&sq=the%20story%20behind%20the%20plot%20against%20america&st=cse>>
- Royal, Derek Parker, ed. *Philip Roth: New Perspectives on an American Author*. CT: Praeger, 2005.
- West, Diana. "The Unnerving 'Plot'." *Townhall* 11 October 2004. Retrieved on 7 July 2009.  
<[http://townhall.com/columnists/DianaWest/2004/10/11/the\\_unnerving\\_plot](http://townhall.com/columnists/DianaWest/2004/10/11/the_unnerving_plot)>
- Yardley, Jonathan. "Homeland Security." *The Washington Post* 3 October 2004. Retrieved on 7 July 2009.  
<<http://www.washingtonpost.com/ac2/wp-dyn/A63751-2004Sep30>>

■ 논문 투고일자: 2010. 3. 30

■ 심사(수정)일자: 2010. 4. 18

■ 게재 확정일자: 2010. 4. 30

**Abstract**

**Philip Roth's *The Plot Against America*:  
'the Legitimate Fear' of History and  
Responsibility**

Youn Su jin

(Seoul National University)

Philip Roth's *The Plot Against America* is based on the assumption of 'What if the Holocaust had happened in America?' With the terrible experience of a Jewish American family facing the unbelievable possibility of the eminent American Holocaust, Roth depicts the unpredictable history. In this novel, Americans rely on the myths which can offer them a comfortable refuge from reality to dispel the fear of the unforeseen. The myth of History turns the disaster of the incomprehensible ongoing events into an epic which chronicles everything unexpected as inevitable, and thus provides "the pleasure of comprehension." At the same time, the myth of American democracy which is epitomized as the claim "It can't happen here" enables people to deny the extant possibility of violence in America. As Hannah Arendt asserts, however, with their hypnotic effect, these myths only benumb our common sense with which we can perceive and understand reality. Dismissing the legitimate fear as paranoia, the myths make people throw themselves into voluntary numbness and forgetfulness. Through the unfolding of the imaginative history from the approaching threat of the American Holocaust to the suturing of the crisis at the end, Roth tries to awake the oblivious state of Americans and asserts the necessity of the individual's responsible act, which is the commonsensical reaction to other's suffering. In doing so, Roth asks for the responsibility to history without which the history of violence, such as the Holocaust, could always happen again.

**Key Words**

Fear(공포), Paranoia(망상), History(역사), Democracy(민주주의), Myth(신화), Common Sense(상식), Responsibility(책임), Anti-semitism(반유대주의), Holocaust(홀로코스트), Fascism(파시즘).